



ETS INSIGHT

ETS INSIGHT

Emissions Trading Scheme & Carbon Market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탄소시장 정보지



구독
신청



전 호
보러가기



정보지 인용
인증



구독자
퀴즈



모바일 채널
바로가기

CONTENTS

아래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01



알림
/소식

02



K-ETS
in Focus

03



Global ETS
in Focus

04



국내
기후변화 동향

05



해외
기후변화 동향

06



구독자
참여 페이지

07



배출권 거래제
바로알기



2022년 배출권거래제 주요일정

December **12** — **01** January

2022년 12/1월 배출권 유상할당 입찰공고

- 입찰일시** 12월 14일(수) 13:00~14:00 **입찰수량** (12월) 2,300,000톤 (입찰 배출권 종류 : KAU22)
1월 11일(수) 13:00~14:00 (1월) 1,000,000톤 (입찰 배출권 종류 : KAU22)
- 낙찰한도** 업체별 낙찰수량은 해당 입찰예정일의 입찰수량 (해당일 입찰수량)의 15%로 제한 - 15% 초과시 호가 거부
- 참고 링크** KRX 배출권시장 정보 플랫폼 [▶ 바로가기](#)
- 참고 링크** 2023년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계획 [▶ 바로가기](#)

※ 제도 운영상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NGMS, ETRS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arch 03

- | '21년도 명세서 제3자 검증 및 제출
- |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 신청

04 April

- | 명세서 배출량 적합성 평가
- | 추가할당/할당취소 적절성 검토 실시

May 05

- | '21년도 배출량 인증 통보
- | 추가할당량 및 할당취소량 통보

06 June

- | 배출량 인증 통보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 | 적합성 평가 및 추가할당/할당취소 검토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 | '21년도 배출권(KAU21) 제출 및 이월 차입 신청
- | 배출권거래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

July 07

- | 인증 이의신청 결과 통보
- | 할당대상업체 신규 진입 자정고시

08 August

- | 이의신청 업체의 이월 차입 신청 및 '21년도 배출권 제출
- | 신규 진입에 대한 이의신청
- | 신규진입자 할당신청서 제출
- | 신규진입자 배출량 산정계획 사전검토 요청

September 09

- | 할당신청서 적절성 검토
- | 신규 진입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통보

10 October

- | 배출량 산정계획서 제3자 검증 및 제출
- | 신규진입자 사전할당량 통보

November 11

- | 배출량 산정계획서 타당성 검토 실시
- | 신규진입자 사전할당량 통보에 따른 이의신청

12 December

- | 신규진입자 사전할당량 이의신청 결과 통보
- | 신규진입자 배출량 산정계획 사전검토 결과 통보



목차로 돌아가기

행사/일정

December **12** ————— **1** January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2/11	12	13	14	15	16	17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내부심사원 양성 교육 (12/12~12/14)(한국품질재단 경영품질교육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 실무 교육 (12/12~12/13)(한국품질재단 경영품질교육원)		12월 배출권 유상할당 (주)아이큐브글로벌 친환경 종이컵 캐릭터 로고 디자인 공모전 (12/14~1/27) ((주)아이큐브글로벌)	2023 전기차 배터리 산업 전망과 안정성 확보 기술 세미나 (12/15~12/16)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		
18	19	20	21	22	23	24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심사원 (탄소발자국) 양성교육 (12/19~12/23)(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환경운동연합 해양활동 담당 모집 (12/8~12/21) (환경운동연합)	2022 순환경제 산업대전 (12/22~12/23)(산업통상자원부)		
25	26	27	28	29	30	31
1/1	1/2	1/3	1/4	1/5	1/6	1/7
1/8	1/9	1/10	1/11	1/12	1/13	1/14
	LCA 전과정평가 실무과정 교육 (서울) (1/9~1/10)(한국품질재단 경영품질교육원)		1월 배출권 유상할당 수소·암모니아 전주기 현황과 전망 세미나 (1/11~1/13)(세미나허브)	2023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전망 컨퍼런스 (1/12~1/13)(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		
1/15	1/16	1/17	1/18	1/19	1/20	1/21
	LCA 전과정평가 실무과정 교육 (대구) (1/16~1/17)(한국품질재단 경영품질교육원)			2023년 스마트팩토리 및 디지털트윈/메타팩토리 신기술 현재와 미래전망 세미나(산업교육연구소)		

알림 / 소식

2023년도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1차 공고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 > **사업내용**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검증된 감축설비 설치비 지원
- > **지원분야** ①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②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③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 > **신청접수**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 **접수기간** 2022.12.15(목) ~ 2022.12.30.(금) 18:00까지



[공고문 보러 가기](#)



목차로 돌아가기

K-ETS in Focus

2022.11.01. ~ 11.30.

지표배출권 KAU22 거래 현황 증가 기준 : (당월) 11월 30일 / (전월) 10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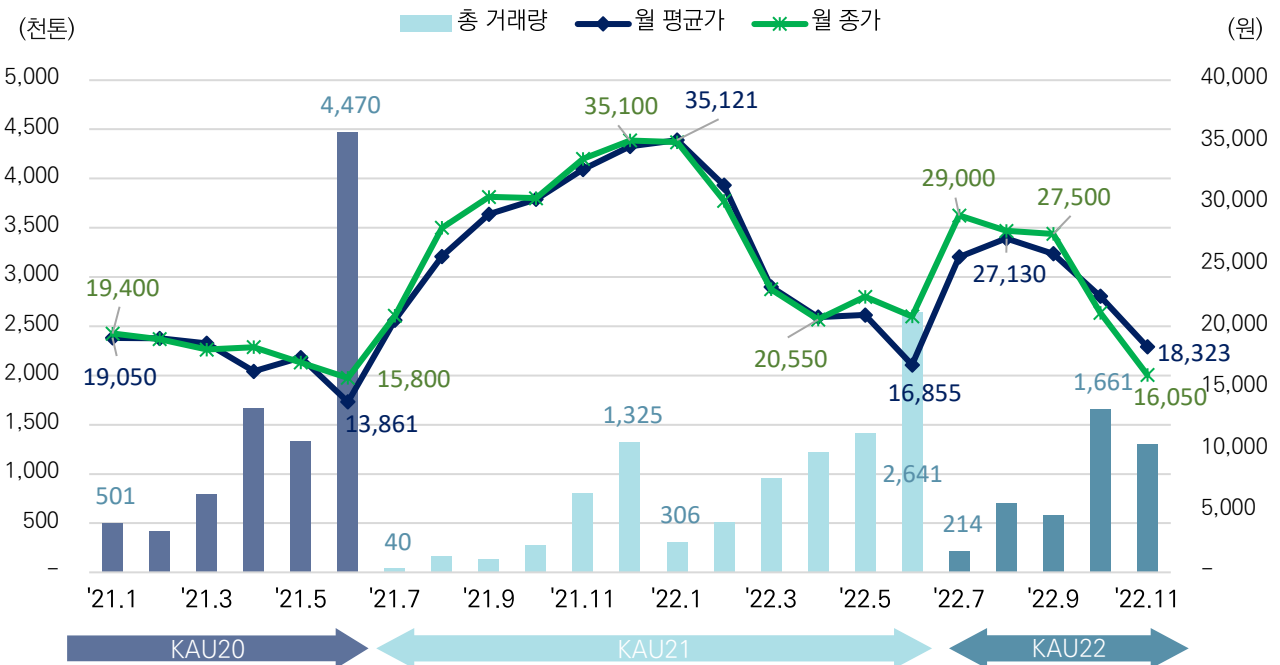
구분	11월						누적 ('21.1.1~'22.11.30)		
	증가	최고가	최저가	전월비	등락률	평균가	최고가	최저가	평균가
가격 (원)	16,050	21,300 ('22.11.4)	15,850 ('22.11.24)	▼ 5,050	▼ 23.93%	18,323	32,700 ('21.11.12)	10,800 ('21.6.22)	23,641

구분	거래량(톤)			거래대금(천원)		
	11월	전월비	누적	11월	전월비	누적
장내거래	740,687	▲ 521,206	2,465,959	13,571,889	▲ 8,647,214	58,297,346
유상할당(경매)	567,600	▼ 773,600	8,447,800	10,983,060	▼ 18,858,640	210,943,860
장외거래	-	▼ 100,000	3,229,913	-	-	-
합계	1,308,287	▼ 352,394	14,143,672	24,554,949	▼ 10,211,426	269,241,206

*누적 기간은 '21.1.1.부터 '22.11.30.까지를 기준으로 산정

지표배출권 장내거래 현황

DATA





목차로 돌아가기

K-ETS in Fo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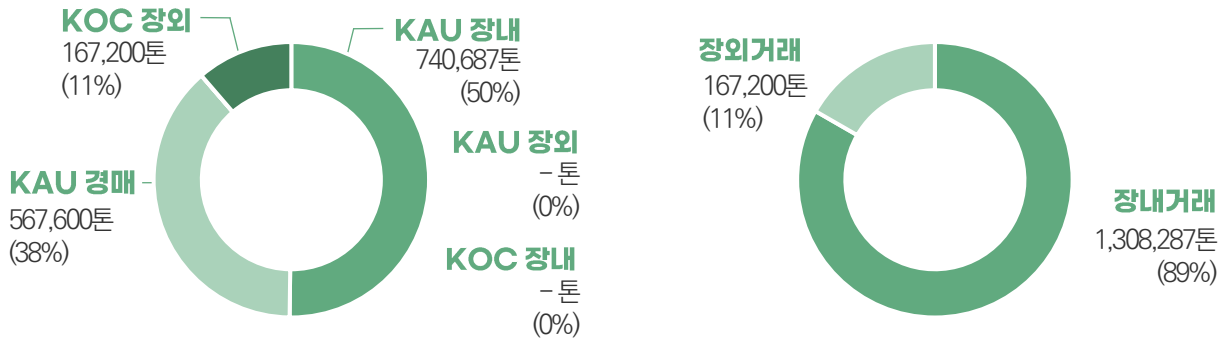
2022.11.01. ~ 11.30.

국내 배출권 종목별 거래 현황 증가 기준 : (당월) 11월 30일 / (전월) 10월 31일

구분	거래량(톤)	비율(%)	세부구분	거래량(톤)	비율(%)
KAU	1,308,287	89%	장내	740,687	50%
			경매	567,600	38%
			장외	-	0%
KOC	167,200	11%	장내	-	0%
			장외	167,200	11%
합계	1,475,487	100%	합계	1,475,487	100%

국내 통계

국내 배출권 장내·외 거래 현황



구분	증가			거래량		
	당월증가	전월증가	전월비	합계	장내	장외
KAU22	16,050	21,100	▼ 5,050	1,308,287	1,308,287	-
KAU23	21,100	27,750	▼ 6,650	-	-	-
KAU24	21,100	27,750	▼ 6,650	-	-	-
KAU25	21,100	27,750	▼ 6,650	-	-	-
KCU22	25,500	26,850	▼ 1,350	-	-	-
i-KCU22	15,450	15,450	-	-	-	-
KOC20-22	20,700	23,000	▼ 2,300	12,124	-	12,124
KOC21-23	26,500	26,500	-	6,926	-	6,926
KOC22-24	24,500	27,000	▼ 2,500	48,150	-	48,150
i-KOC21-23	29,000	29,000	-	-	-	-
i-KOC22-24	30,000	30,000	-	100,000	-	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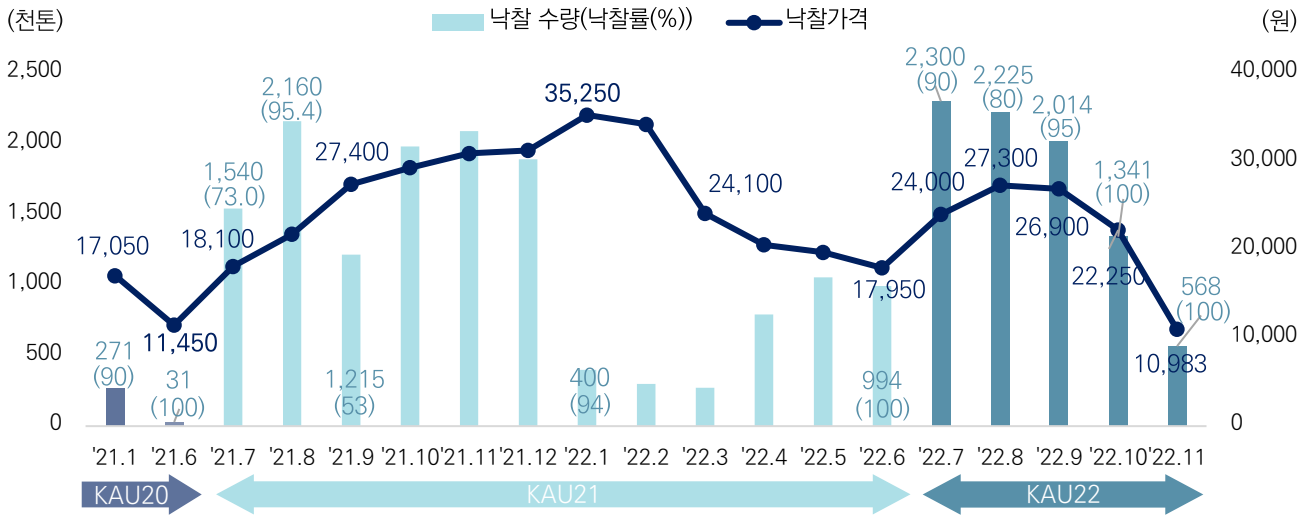


목차로 돌아가기

K-ETS in Focus

배출권 경매

DATA



※낙찰률: 낙찰수량/응찰수량

※2021년 2월부터 5월까지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 일시 중단

경매일자	종목	입찰수량 (톤)	응찰수량 (톤)	낙찰가격 (원)	낙찰수량 (톤)	총낙찰액 (백만원)
2019	KAU18~KAU19	8,090,000	12,194,700	29,721	7,949,500	236,266
2020	KAU19~KAU20	9,433,600	9,428,400	29,600	8,171,400	241,873
2021	KAU20~KAU21	20,463,200	12,999,200	23,400	11,177,400	261,551
2022-01-12	KAU21	1,000,000	424,800	35,250	400,000	14,100
2022-02-09	KAU21	1,000,000	302,000	34,200	300,000	10,260
2022-03-16	KAU21	1,000,000	273,600	24,100	272,600	6,569
2022-04-13	KAU21	1,000,000	794,200	20,550	792,200	16,280
2022-05-11	KAU21	2,500,000	1,056,000	19,700	1,055,000	20,784
2022-06-08	KAU21	2,500,000	993,900	17,950	993,900	17,841
2022-07-13	KAU22	2,300,000	2,562,500	24,000	2,300,000	55,200
2022-08-10	KAU22	2,300,000	2,775,000	27,300	2,225,000	60,743
2022-09-14	KAU22	2,375,000	2,114,200	26,900	2,014,000	54,177
2022-10-12	KAU22	2,661,000	1,341,200	22,250	1,341,200	29,842
2022-11-09	KAU22	2,300,000	567,600	19,350	567,600	10,983
2022-12-14	KAU22	2,300,000	1,380,000	14,700	1,380,000	20,286

※2019~2021년은 연간 총 경매량 기준(최고·최저·낙찰가는 평균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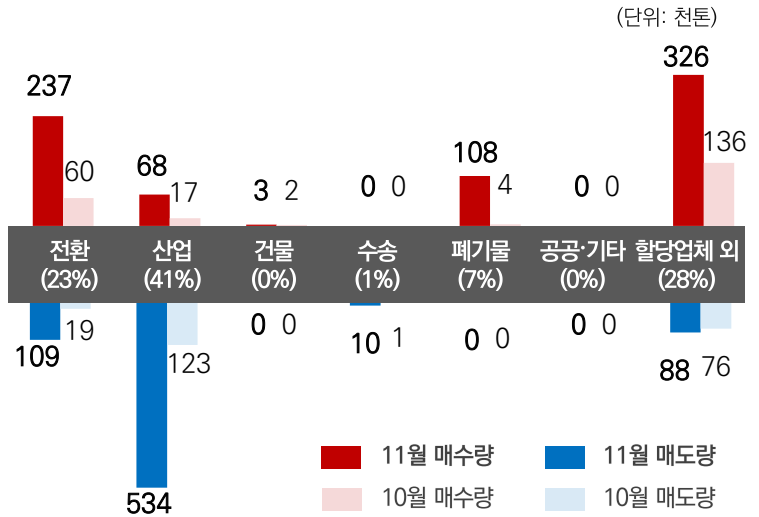
목차로 돌아가기

K-ETS in Focus

2022.11.01. ~ 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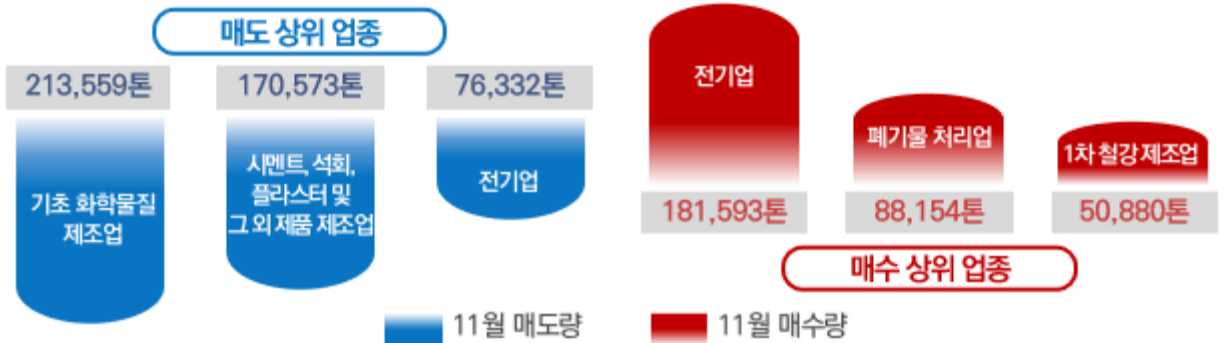
KAU22~KAU25 부문별 장내거래 현황 2022.11.01. ~ 11.30.

부문명	매수량(톤)	매도량(톤)
전환	236,708	108,832
산업	67,671	534,070
건물	2,900	-
수송	-	9,900
폐기물	107,779	200
공공·기타	-	-
할당업체 외*	325,629	87,685
합계	740,687	740,687



*시장조성자 및 증권사

KAU22 업종별 장내거래 현황 DATA



순위	업종	매도량(톤)	순위	업종	매수량(톤)
	합계	653,002		합계	415,058
1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213,559	1	전기업	181,593
2	시멘트, 석회, 플라스틱 및 그 외 제품 제조업	170,573	2	폐기물 처리업	88,154
3	전기업	76,332	3	1차 철강 제조업	50,880
4	1차 철강 제조업	56,728	4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28,100
5	석유 정제품 제조업	55,210	5	증기, 냉·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7,015
6	증기, 냉·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2,500	6	반도체 제조업	14,301
7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4,000	7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12,256
8	기타*	24,100	8	기타**	12,759

* 1차 비철금속, 육상 여객 운송업, 화학석유 제조업 등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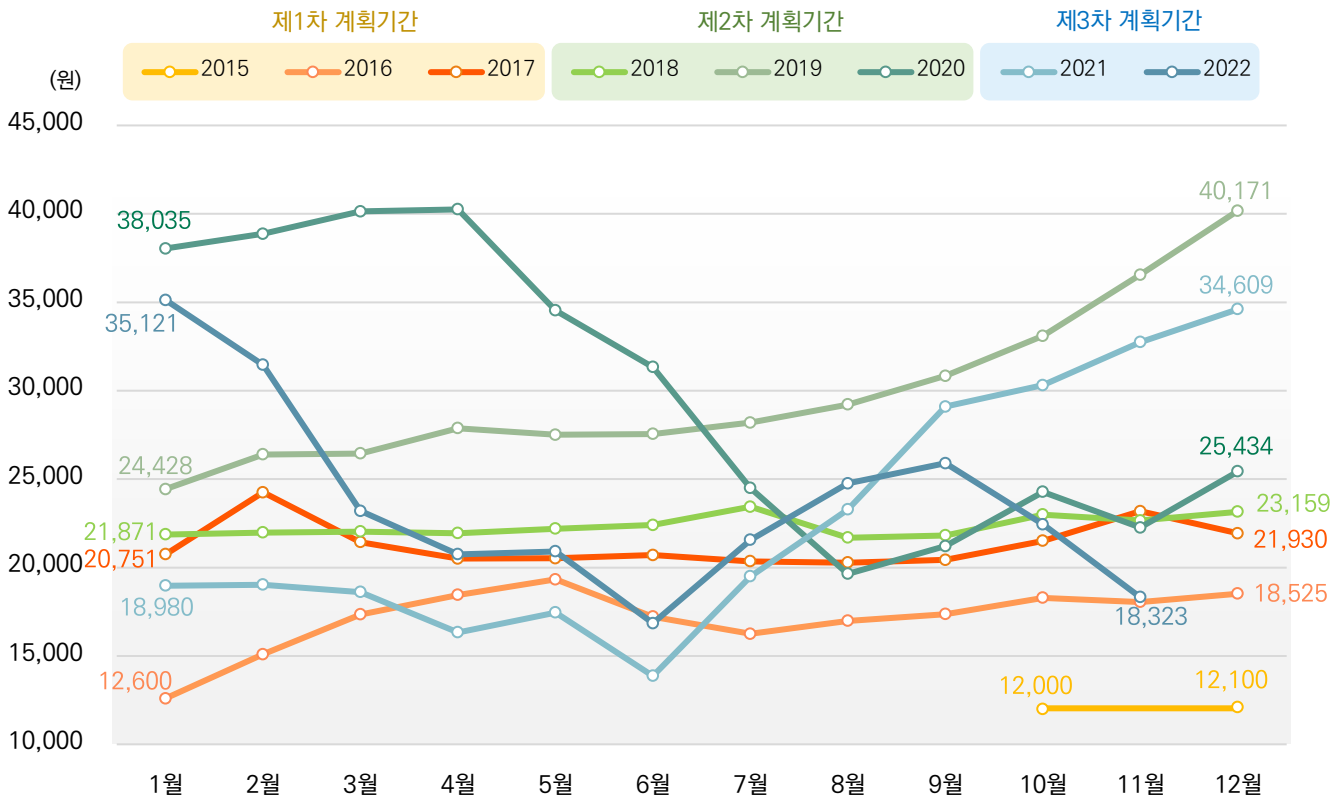
**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1차 비철금속 제조업,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등에 해당



K-ETS in Focus

2022.11.01. ~ 11.30.

국내 배출권(KAU) 장내 평균가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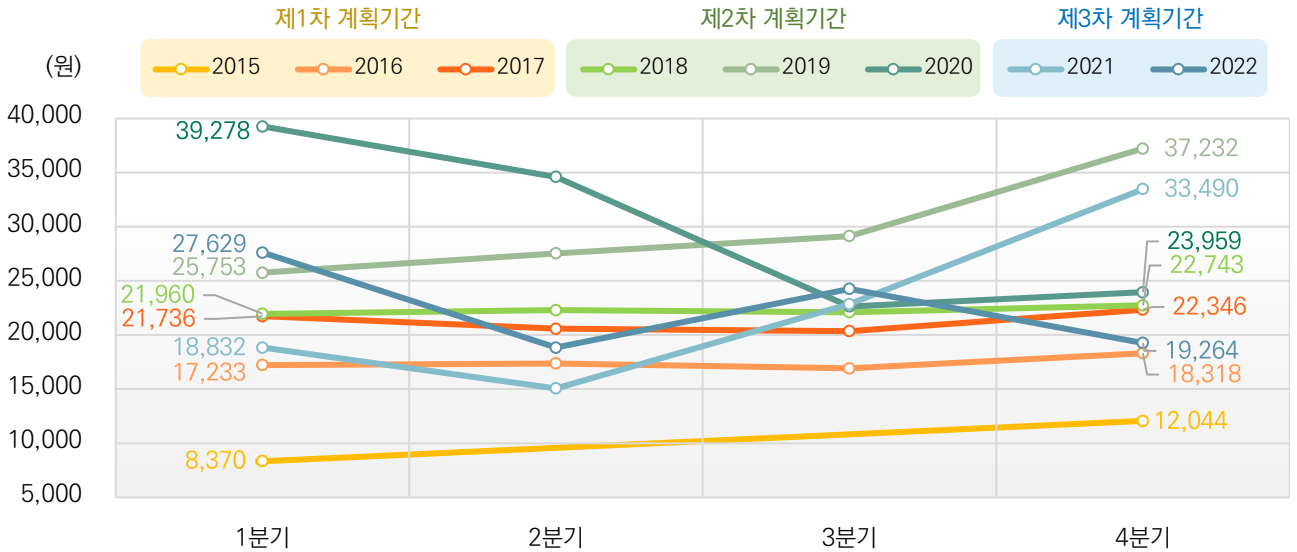
구분	월평균가(원)												연평균가(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5	8,370	-	-	-	-	-	-	-	-	12,000	-	12,100	12,028
2016	12,600	15,100	17,349	18,456	19,326	17,223	16,258	16,985	17,364	18,291	18,056	18,525	17,367
2017	20,751	24,254	21,440	20,507	20,522	20,702	20,350	20,276	20,437	21,512	21,184	21,930	21,131
2018	21,871	21,984	22,032	21,945	22,193	22,406	23,435	21,686	21,820	22,997	22,657	23,159	22,237
2019	24,428	26,393	26,450	27,876	27,508	27,553	28,192	29,215	30,835	33,093	36,548	40,171	29,126
2020	38,035	38,867	40,134	40,247	34,532	31,329	24,496	19,649	21,209	24,279	22,264	25,434	29,026
2021	18,980	19,028	18,613	16,338	17,453	13,873	19,502	23,284	29,097	30,310	32,746	34,609	19,709
2022	35,121	31,458	23,203	20,749	20,914	16,854	21,562	24,757	25,894	22,438	18,323	-	21,517



K-ETS in Focus

2022.11.01. ~ 11.30.

국내 배출권(KAU) 장내 평균가격 현황



구분	분기별 평균가(원)				연평균가 (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15	8,370	-	-	12,044	12,028
2016	17,233	17,371	16,916	18,318	17,367
2017	21,736	20,582	20,357	22,346	21,131
2018	21,960	22,300	22,111	22,743	22,237
2019	25,753	27,548	29,141	37,232	29,126
2020	39,278	34,618	22,642	23,959	29,026
2021	18,832	15,060	22,861	33,490	19,709
2022	27,629	18,843	24,266	19,264	21,517

주요 정보 사이트 ※ 사이트 버튼을 누르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환경부 · 시장 전반 관리. 감독	한국환경공단 · 배출권거래제 운영기관 · 배출권 할당, 배출량 평가, 인증 · 온실가스 감축 참여업체 지원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리 ·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운영 ·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지원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 · 배출권 시세조회(일일거래, 경매) · 한국거래소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 리포트
배출권등록부시스템 · 배출권 제출 및 거래 시스템 · 업체의 배출권할당량, 총량, 보유량 등 확인 가능	상쇄등록부시스템 Offsets Registry System · 외부사업 방법론, 외부사업 등록 및 감축량 인증 등의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 명세서, 배출량 산정계획서, 할당신청서 등의 배출권거래제 대응보고서 제출 시스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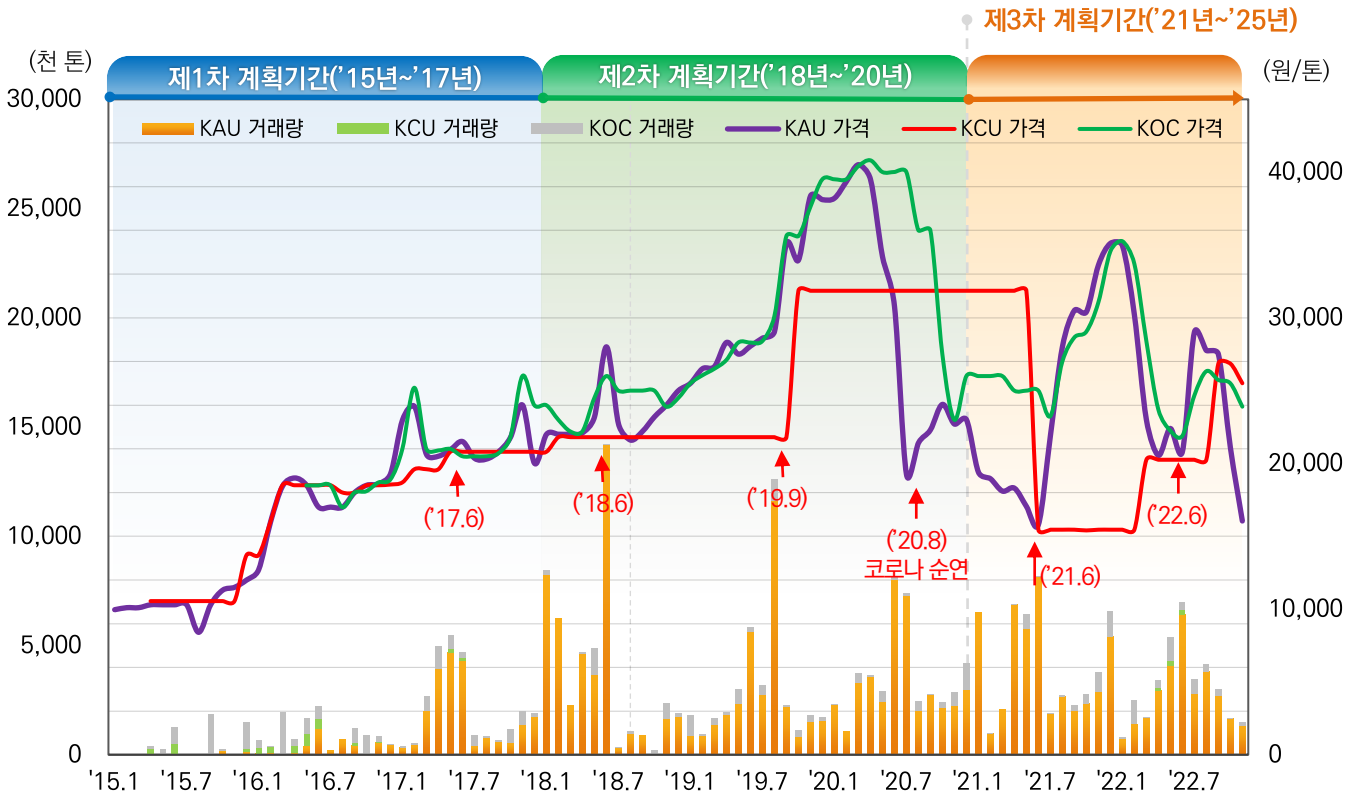


목차로 돌아가기

K-ETS in Focus

국내 배출권(KAU, KCU, KOC) 누적 거래현황

DATA



- ※ 거래량: 장내·외 거래 기준
- ※ 국내 배출권 가격: 해당 배출권 월말 종가
- ※ KOC가격: KOC20-22종가, KOC21-23종가, KOC22-24종가의 산술평균 가격
- ※ 화살표(↑): 배출권 제출 시기

※단위: 거래량(천 톤), 거래대금(억 원), 평균가(원)

구분	최근 월 거래량			최근 분기별 거래량				최근 연거래량			누적	
	'22. 9월	'22. 10월	'22. 11월	'22.1분기	'22.2분기	'22.3분기	'22.4분기	'20년	'21년	'22년		
KAU	거래량	2,700	1,661	1,308	3,725	13,450	9,311	2,969	40,257	48,707	29,456	222,512
	거래대금	694	517	273	1,794	2,539	2,494	1,901	12,363	11,175	6,955	55,297
	평균가	25,894	22,438	18,323	27,629	18,843	24,266	19,264	29,026	19,709	21,517	-
KCU	거래량	-	-	-	-	585	105	-	-	-	690	4,114
	거래대금	-	-	-	-	120	28	-	-	-	148	688
KOC	거래량	425	22	167	1,162	2,387	1,404	189	3,756	6,009	5,142	36,879
	거래대금	114	-	35	262	440	224	35	1,021	1,597	961	260,302



목차로 돌아가기

Global ETS in Focus

※ 환율 기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2. 11. 30

해외배출권 거래 현황

제도 (System)	원 / 톤	전월비 (원/톤) / 등락률 (%)
EU-ETS		
- EUA(현물)	116,198 (84.55 EUR) 2022.11.30	▲ 6,693 ▲ 6.11
- EUA(선물)	116,390 (84.69 EUR) 2022.11.30	▲ 6,487 ▲ 5.90
- EUA(경매)	108,406 (78.88 EUR) 2022.11.30	▲ 261 ▲ 0.24
영국(선물)	113,480 (71.32 UKA) 2022.11.30	▼ 10,072 ▼ 8.15
캘리포니아(경매)	35,684 (26.80 USD) 2022.11.23	▼ 266 ▼ 0.74
RGGI(경매)	17,909 (13.45 USD) 2022.09.07	▼ 599 ▼ 3.24
뉴질랜드(현물)	69,435 (84.15 NZD) 2022.11.30	▼ 495 ▼ 0.71
중국 국가단위ETS	10,620 (57.52 CNY) 2022.11.30	▼ 89 ▼ 0.83

※ 영국 : 브렉시트 이후 EU-ETS를 대체하기 위해 UK-ETS를 2021년부터 발효했으며, 적용부문은 에너지집약산업, 발전부문, 항공부문 등을 대상으로 함.

※ 캘리포니아 : 미국 캘리포니아와 캐나다 퀘벡 등 2개주의 발전, 산업, 연료공급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연 4회 경매 실시.

※ RGGI : 미국 북동부 11개 주의 25MW 이상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하는 총량거래방식 시장으로 100% 경매(유상할당)로 이루어짐.

※ 뉴질랜드 : 산림, 에너지, 수송, 산업공정, 농업 등 모든 부문을 대상으로 하며 현물거래 정보 제공.

※ 중국 국가단위 : 2013~2019년 동안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26,000톤 이상인 전력부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주로 무상할당으로 이루어짐.

환율

1EUR	1,374.31원
1UKA	1,591.14원
1USD	1,331.50원
1NZD	825.13원
1CNY	184.64원

해외 배출권 거래 현황 확인 사이트

EU-ETS 현물 (일별), 경매: EEX 22 DEC 선물: ICE	영국 ETS 선물 (일별)	캘리포니아 ETS 현물 경매 (3개월 주기)	RGGI 현물 경매 (3개월 주기)	뉴질랜드 ETS 현물 (일별)	중국 ETS 현물 (일별)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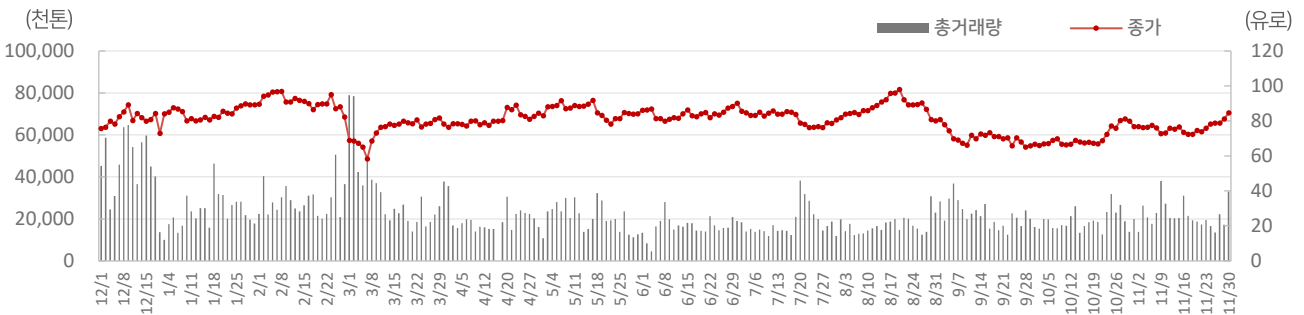


Global ETS in Focus

※ 환율 기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2. 11. 30

선물시장(EUA Futures DEC22) – ICE 거래소 기준

	10월	11월	
증가	79.97유로 (109,904원)	84.69유로 (116,390원)	▲ 6,487원
평균가	70.49유로 (96,869원)	76.26유로 (104,802원)	
최고가	81.21유로 (111,608원)	84.69유로 (116,390원)	
최저가	65.94유로 (90,622원)	72.40유로 (99,500원)	
총거래량	403,272천톤	478,171천톤	▲ 74,899천톤



현물시장(EEX EUA Spot) – EEX 거래소 기준

	10월	11월	
증가	79.68유로 (109,505원)	84.55유로 (116,198원)	▲ 6,693원
평균가	70.24유로 (96,530원)	76.09유로 (104,566원)	
최고가	80.91유로 (111,195원)	84.55유로 (116,198원)	
최저가	65.58유로 (90,127원)	72.24유로 (99,280원)	
총거래량	365,000톤	638,000톤	▲ 273,000톤

경매시장(EUA Primary Auction Spot) – EEX 거래소 기준

	10월	11월	
증가	78.69유로 (108,144원)	78.88유로 (108,406원)	▲ 261원
평균가	69.52유로 (95,542원)	75.55유로 (103,824원)	
최고가	80.76유로 (110,989원)	79.36유로 (109,065원)	
최저가	64.45유로 (88,574원)	71.62유로 (98,428원)	
총거래량	46,285,500톤	46,285,500톤	-

I EU-ETS 가격 상승

11월 유럽 배출권거래제 EUA ('22 DEC) 가격은 10월 증가 대비 5.9%(약 € 4.72, 6,487원) 상승하며 상승세를 보였고, EUA 선물거래량은 18.57% 증가하였다.

겨울철 난방을 위한 화석연료 필요성이 높아져, 탄소 배출량 증가가 예상되면서 배출권 수요를 자극하여 EU 탄소배출권 가격이 상승하였다.



목차로 돌아가기

Global ETS in Fo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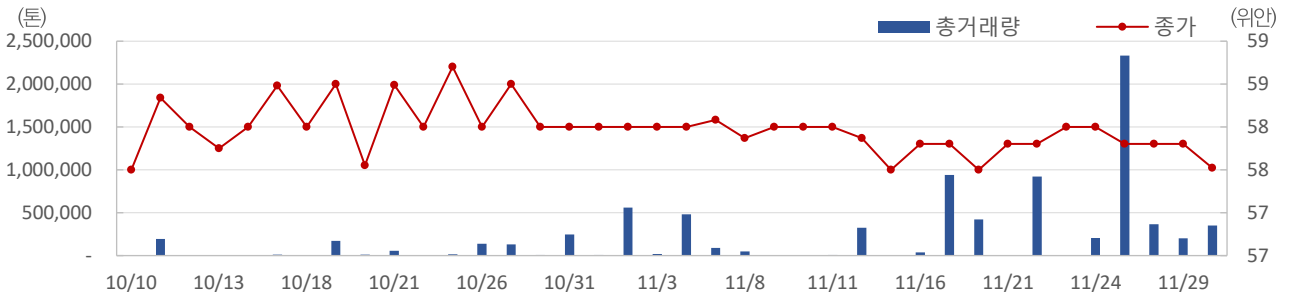
※ 환율 기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2. 11. 30

중국 국가단위 통합 탄소배출권

중국 국가단위 통합 탄소배출권 거래량 대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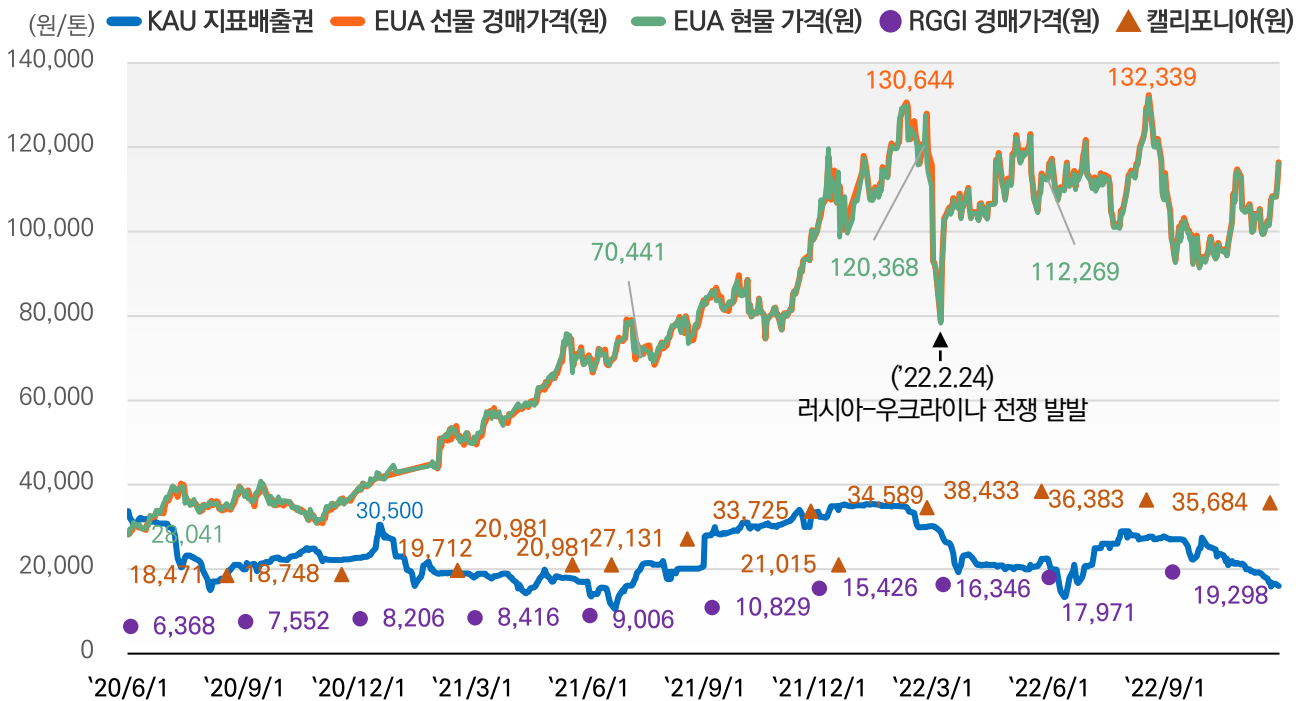
중국 전국 통합 탄소배출권 11월 증가는 10,620원으로 10월 증가 대비 소폭 하락하였고, 당월 총 거래량은 7,298,372톤으로 전월 969,746톤 대비 약 6.5배 증가하였다.

	10월	11월	
증가	58.00CNY (10,709원)	57.52CNY (10,620원)	▼ 89원
평균가	58.11CNY (10,730원)	57.86CNY (10,683원)	
최고가	58.70CNY (10,838원)	58.08CNY (10,724원)	
최저가	57.50CNY (10,617원)	57.50CNY (10,617원)	
총거래량	969,746톤	7,298,372톤	▲ 6,328,626톤



국가별 배출권 가격 비교

DATA



해외 통계



국내 기후변화 동향

국제항공 탄소상쇄 · 감축제도(CORSIA)

CORSIA(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는 UN 산하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합의에 따라 국제항공에서 배출되는 CO₂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채택된 글로벌 시장 기반 메커니즘이다.

등장 배경

운송수단 중 가장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는 항공 산업의 탄소 감축 문제는 지난 1995년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국제항공 배출량의 할당 방법 및 관리 방안을 다루면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2006년 말 EU의 국제항공 ETS 도입 계획¹⁾이 발표되면서 CORSIA 도입에 결정적인 촉진제가 되었다.

2010년 ICAO는 'CNG2020'(2020년 이후 탄소 중립성장)에서 매년 연료효율을 전년대비 2% 개선시킨다는 감축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이후 2018년 지금의 CORSIA가 발표되면서 국제항공 부문에서의 모니터링 및 배출량 상쇄가 시작되었다.

사업 개요

CORSIA는 2021년부터 국제 민간 항공사의 순 CO₂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을 목표로 개별 항공사가 할당된 기준치를 초과하여 탄소를 배출할 경우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여 초과분을 상쇄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의무 대상은 2021-2035년 기간 중 본 제도에 참여하는 국가 사이에서 국제 비행을 하는 비행기이다. ICAO는 국제 항공에서 탄소 중립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기 전략(2021-2035년)을 설계하였으며, 자발적 참여 기간인 시범운영단계와 제1단계를 거쳐 제2단계부터는 의무적 참여로 전환된다. 또한, ICAO는 지속가능 항공연료 보급 비중을 2025년 2%에서 2050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중장기 비전을 수립했다. ICAO의 감축 수단으로는 대체 연료, 항공기의 무게 감소, 항공역학적 개선, 엔진 성능 개선과 같은 항공기 기술과 공항시설 및 운영 개선 등이 있다.

시범 운영 단계 (2021~2023년)	제 1단계 (2024~2026년)	제 2단계 (2027~2035년)
자발적 참여 단계		의무이행단계

1) 현재, EU ETS에서 역외 노선에 대해 시행을 중지하였으며, 역외 노선에 대해서는 시행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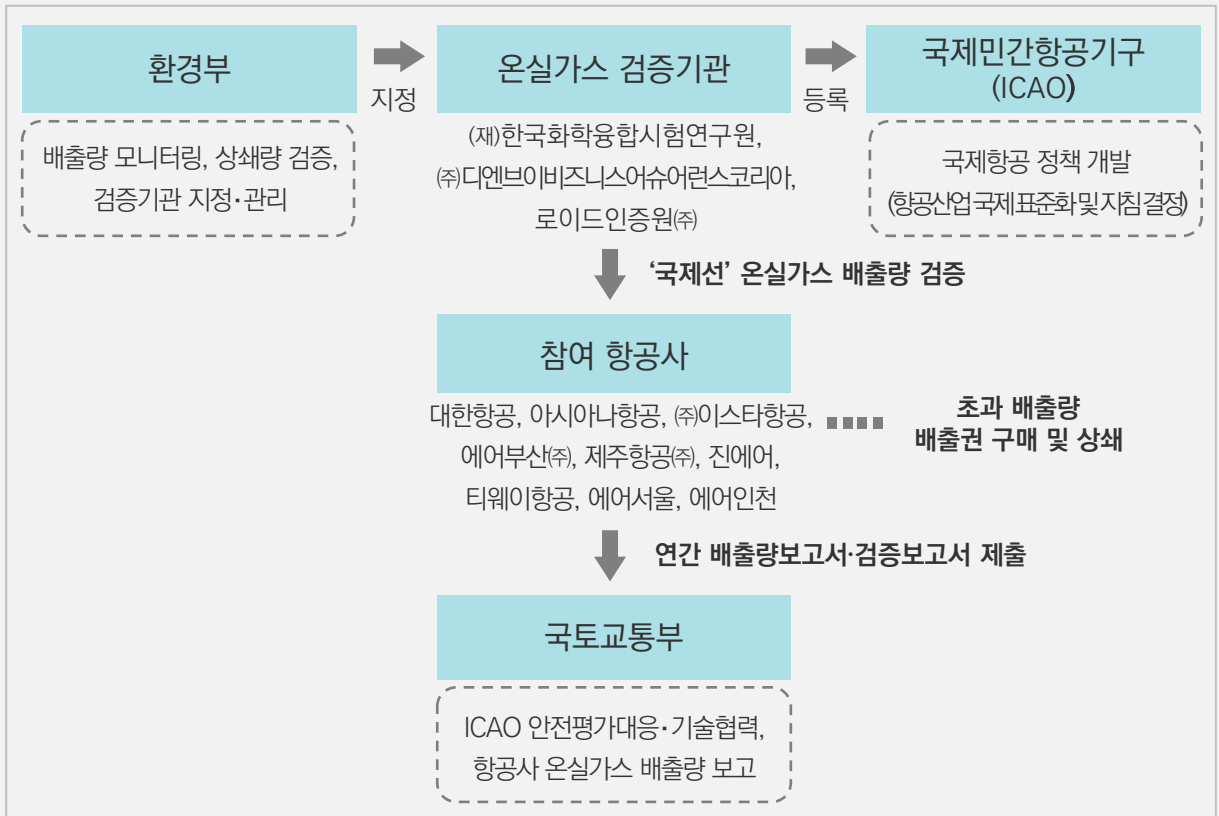


국내 기후변화 동향

국내 대응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CORSIA 참여를 선언했다. 환경부는 3개의 온실가스 검증기관을 지정했으며, 각 검증기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검증기관으로 등록 후, 3년간(2021-2023년) 국제선 운영 항공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한다. 국내에선 9개 항공사가 CORSIA에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참여 항공사는 검증기관으로부터 국제선 운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 받은 후 국토교통부에 연간 배출량보고서와 검증보고서를 제출하고, 기준량을 초과한 항공사는 배출권을 구매하여 상쇄하여야 한다.

[한국의 CORSIA 참여 기관·방식·절차]



※ 참고자료: IMPACT ON(임팩트온)(<http://www.impacton.net>)



국내 기후변화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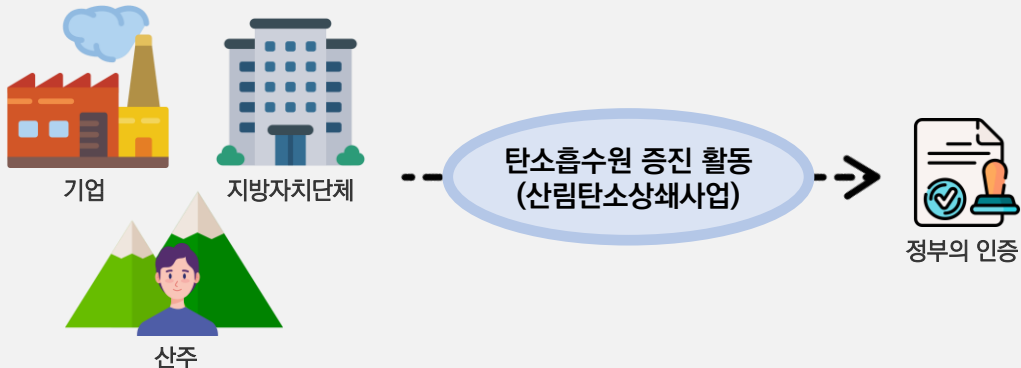
산림탄소상쇄제도

산림청은 지난 11월 10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VERRA²⁾, SK임업과 함께 산림탄소상쇄제도와 VCS³⁾를 연계하기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산림탄소상쇄제도와 VCS의 연계가 이루어지면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정의

산림탄소상쇄제도는 기업, 산주, 지방자치단체 등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자발적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으로는

①신규조림/재조림, ②산림경영, ③식생복구, ④목제품 이용, ⑤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사업, ⑥ 산지적용 억제, ⑦복합형 사업 등이 있다.



도입 배경

산림청은 UN기후변화협약에서 인정하는 핵심 탄소흡수원인 산림을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보한 산림탄소 흡수량을 사고팔거나 홍보 등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림탄소상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세계 최대 규모의 자발적 탄소 크레딧인 VCS를 운영하는 비영리단체(NGO)

3) Verified Carbon Standard. 국가, 기업 등의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 실적을 모니터링·검증하여 크레딧을 발행. 자발적 탄소 상쇄를 위한 주요 표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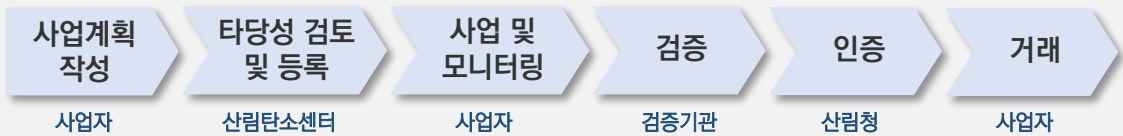


국내 기후변화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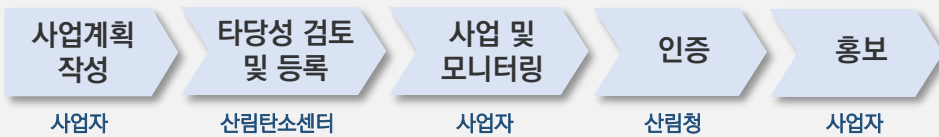
참여 유형

참여유형은 산림탄소흡수량 거래 가능 여부에 따라 “거래형”과 “비거래형”으로 구분되며, 참여유형에 따른 사업 절차는 다음과 같다.

[거래형]



[비거래형]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비교]

구분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목적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유지 및 증진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 구현
관련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배출권거래법, '15.1 시행)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탄소흡수원법, '13.2 시행)
관련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장기관 : 농식품부(산림·농업) • 운영기관 : 한국임업진흥원 ☎ 문의처 : 산림탄소경영실(02-6393-27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기관 : 산림청 • 운영기관 : 한국임업진흥원(산림탄소센터) ☎ 문의처 : 산림정책과(042-481-4156)
대상 사업자	외부사업의 발굴·시행 및 운영에 책임이 있는 사업 주체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2조제2항 정의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국민 등 *「탄소흡수원법」제3조제4항 정의
거래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거래(한국거래소 기반) • 장외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개거래(산림탄소등록부 기반) • 장외거래

산림탄소흡수원사업 통합 가이드북 바로가기



국내 기후변화 동향

국내 기후 소식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 성공리에 안착



녹색분류체계 적용 녹색채권 6,400억 원 발행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우수사례 12개 선정



우수사례 포상과 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탄소중립 성과보고회' 개최



환경규제 혁신경험,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과 나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규제정책위원회에서 환경규제 혁신 사례발표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 만들기, 닳을 올리다



제1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 우루과이에서 열려 2024년 완료를 목표로 치열한 협상 시작



일회용컵 보증금제, 쓰레기 줄이는 한 걸음 내딛다



다회용컵으로 대체하거나 재활용이 쉬운 일회용컵 사용 증가



배출권 시장 활성화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시장조성자 2곳 추가 지정 및 증권사 보유 한도 확대



제4차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대 시행



기존 수도권에서 부산·대구로 확대



환경기술개발 30년의 결실, 함께 만드는 녹색미래



30주년 기념식 개최 및 2050 환경기술 미래비전 발표



국내 기후 동향



해외 기후변화 동향

Issue *in* focus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기금 설립 합의!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7차 당사국총회 특집

UNFCCC > 환경부 > ENB > Carbon Brief > UN >



사진출처 UNFCCC누리집
Credit: Kiara Worth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27차 당사국총회(COP27)가 당초 폐막일을 40시간 가량 초과한 11.20(일) 오전 10시 경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Sharm el-Sheikh Implementation Plan)’ 결정문을 채택하고, 2주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였다.

[사메 쇼크리 COP27의장의 폐회 선언]

6년 만에 아프리카에서 개최된 이번 총회에는 198개 협약 당사국 중 195개 당사국 정부대표단과 국제기구 및 비정부 기구 등 26,370명이 참석하였다. 부대행사 등 참관단(overflow) 및 회의 진행 인력 등 합산시 총 인원은 49,704명으로 지난 제26차 총회 보다 11천여 명이 더 참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되었다.

[참고] COP27 참석자 규모¹⁾

구분	COP26 (‘21.11, 영국 글래스고)		COP27(‘22.11, 이집트 샤름엘셰이크)	
	국가/기관수	참가자(명)	국가/기관수	참가자(명)
당사국	195	9,749	195	11,969
UN 사무국 및 관련 기구	52	730	61	999
국제기구	75	741	99	1,151
비정부기구	1,598	9,529	1,649	10,090
언론	1,089	2,602	948	2,160
소 계	3,009	23,351	2,950	26,370
당사국 참관단	-	6,225	-	9,535
UN 등 참관단	-	925	-	1,510
회의 진행요원	-	6,232	-	8,070
기타 (의장국 임시 출입자 등)	-	1,724	-	4,219
소 계	-	15,106	-	23,334
총 계	-	38,457	-	49,704

1) UNFCCC 공식 집계 자료(COP26 및 COP27 최종 참가자) 기준



해외 기후변화 동향

샤름엘셰이크 이행 계획

통상 매년 당사국총회 대표 결정문은 개최지(도시) 이름을 포함하여 명명된다. COP27의 대표 결정문은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Sharm el-Sheikh Implementation Plan)’으로 이번 총회를 본격적인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총회로 만들고자 했던 의장국 이집트의 포부가 반영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파리협정 당사국회의(CMA²⁾) 결정문도 동일 표제로 채택하였다. 이번 결정문은 개도국에서 개최된 총회의 특성을 살려 파리협정 1.5°C 목표달성을 위한 감축, 적응, 손실과 피해, 자원, 기술, 역량배양 등 협정의 주요 요소뿐 아니라 에너지, 해양, 산림, 농업 분야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비정부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행동도 촉구하고 있다.

[참고] COP27과 CMA4 결정문 포함 내용³⁾

COP27 결정문(1/CP.27)	CMA4 결정문(1/CMA.4)
I. 과학 및 시급성(Science and urgency)	I. 과학 및 시급성(Science and urgency)
II. 의욕 및 이행 강화 (Enhancing ambition and implementation)	II. 의욕 및 이행 강화 (Enhancing ambition and implementation)
III. 에너지(Energy)	III. 에너지(Energy)
IV. 감축(Mitigation)	IV. 감축(Mitigation)
V. 적응(Adaptation)	V. 적응(Adaptation)
VI.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VI.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VII. 조기 경보 및 체계적 관측 (Early warning and systematic observation)	VII. 조기 경보 및 체계적 관측 (Early warning and systematic observation)
VIII. 이행-정당한 전환을 위한 경로 (Implementation-pathways to just transition)	VIII. 이행-정당한 전환을 위한 경로 (Implementation-pathways to just transition)
IX. 자원(Finance)	IX. 자원(Finance)
X. 기술 이전 및 배치(Technology transfer and deployment)	X. 기술 이전 및 배치(Technology transfer and deployment)
XI. 역량 배양(Capacity-building)	XI. 역량 배양(Capacity-building)
	XII. 투명성(Transparency)
XII. 중간 점검(Taking stock)	XIII. 중간 점검(Taking stock)
	XIV. 파리협정 제6조(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XIII. 해양(Ocean)	XV. 해양(Ocean)
XIV. 산림(Forest)	XVI. 산림(Forest)
XV. 농업(Agriculture)	
XVI. 이행 강화: 비당사국 이해관계자의 행동 (Enhancing implementation: action by non-Party stakeholders)	XVII. 이행 강화: 비당사국 이해관계자의 행동 (Enhancing implementation: action by non-Party stakeholders)

2)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3) 협약과 파리협정의 관장 범위에 따라 항목별 세부 내용은 차이가 있음

해운



해외 기후변화 동향

특히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경로를 논의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작업 프로그램(work programme on just transition)’을 설립하고,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고위급 원탁회의를 매년 개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IPCC 제6차 평가보고서⁴⁾가 파리협정 1.5°C 목표 달성을 위해 권고한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43% 감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아직까지도⁵⁾ 2030년 NDC를 상향하지 않은 국가들에게 기존 목표를 재검토 및 상향하여 2023년말까지 제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기금 설립 합의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는 자연재해와 같은 극한 기후현상과 해수면이나 평균 기온 상승과 같은 점진적 변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 측면을 포괄한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국토가 사라지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받고 있는 작은 섬나라 국가들(군소도서국연합⁶⁾)은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문안협상이 진행된 1990년대 초반부터 적응과 별개로 손실과 피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런 노력 끝에 파리협정 제8조에 독립적인 손실과 피해 조항이 마련되게 되었으나, 실질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자원 지원 문제는 논의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여름,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대홍수⁷⁾로 손실과 피해에 대한 개도국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했고,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대륙인 아프리카에서 개최된 총회였던 바 손실과 피해 관련 의미있는 결과물을 반드시 도출하겠다는 의장국의 의지도 강했다. 그 결과, 기후변화협약 채택 30년 만에 처음으로 협약 당사국총회(COP) 의제로 손실과 피해 관련 자원 문제가 정식으로 채택되었다. 회의 기간 중 개도국들은 ‘손실과 피해’ 대응을 전담하는 재정기구(financial facility)를 신설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반면, 선진국들은 자원 공여 의무를 강제하거나 새로운 기구 창설보다는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 등 손실과 피해 관련 자원의 확대와 녹색기후기금(GCF) 등 기존에 설립된 재정기구의 기능 강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4) 제III 실무작업반 보고서('22.4) 권고사항, 보고서 관련 상세 내용은 ETS Insight 제47호('22.5월) 참조

5) 작년 COP26 결정사항으로, 당초 '22년 말까지 상향 제출 요청

6) Alliance of Small Island States(AOSIS)

7) 2022년 6월부터 3개월 이상 지속된 폭우로 인해 11백명 이상 사망, 13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 발생



해외 기후변화 동향

Decision -/CP.27 -/CMA.4

Funding arrangements for responding to loss and damage associated with the adverse effects of climate change, including a focus on addressing loss and damage¹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nd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Recalling the Convention and the Paris Agreement,

1. *Acknowledge* the urgent and immediate need for new, additional, predictable and adequate financial resources to assist developing countries that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the adverse effects of climate change in responding to economic and non-economic loss and damage associated with the adverse effects of climate change, including extreme weather events and slow onset events,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ongoing and ex post (including rehabilitation, recovery and reconstruction) action;
2. *Decide* to establish new funding arrangements for assisting developing countries that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the adverse effects of climate change, in responding to loss and damage, including with a focus on addressing loss and damage by providing and assisting in mobilizing new and additional resources, and that these new arrangements complement and include sources, funds, processes and initiatives under and outside the Convention and the Paris Agreement;
3. *Also decide*, in the context of establishing the new funding arrange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 2 above, to establish a fund for responding to loss and damage whose mandate includes a focus on addressing loss and damage;
4. *Establish* a transitional committee on the operationalization of the new funding arrangements for responding to loss and damage and the fund established in paragraph 3 abov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ransitional Committee),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reference contained in the annex, to make recommendations based on, inter alia, elements for operationalization included in paragraph 5 below, for consideration and adoptio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t its twenty-eighth session (November–December 2023) and the

최종적으로 개도국 의견을 반영하여 손실과 피해 복구를 위한 기금(fund)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자원 지원 체계 (new funding arrangements)를 설립하되, 기존의 손실과 피해 관련 재원지원 체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동 기금과 지원체계의 상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선진-개도국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 (transitional committee)를 설립하여 기금의 제도적 장치 마련 및 기존 자원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내년까지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2030년까지의 감축 의욕 및 이행 강화를 위한 작업 프로그램 운영 방식 결정



©한국환경공단
[합의안 도출을 위해 협의 중인 협상가들]

지난 COP26에서 설립에 합의한 감축 작업프로그램(MWP⁸) 운영을 위한 요소에 대한 협상도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추가적인 감축 부담을 우려한 일부 개도국이 감축 작업프로그램을 1년(23)에 한해 운영하자고 주장한데 반해 선진국과 기후변화에 취약한 섬나라 개도국 등은 조속한 감축 행동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해야한다고 대립하였다.

최종적으로 추가적인 감축 의무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기반하여 COP27 종료 후 즉시 개시하여 2026년까지 운영하고, 2026년에 지속 여부를 논의하는 선에서 중재안을 채택했다. 주목할 점은 감축 작업프로그램에서 다룰 주제를 논의하는 “대화체(dialogues)”로, 매년 최소 2회의 전지구적 대화체를 개최하도록 하고 매년 지역별 기후주간 등 기존 행사와 연계하여 추가적인 대화체 개최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대화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부문 및 주제별 감축방안, 기술, 정의로운 전환 등에 관한 의견과 우수사례 등이 논의될 예정이며, 특히 실제 감축 이행 주체인 기업 등 민간 부문도 참여할 예정이다.

- 8) 정식 명칭: 이번 10년(~'30) 동안 감축 의욕 및 이행의 시급한 규모 확대를 위한 작업 프로그램(work programme to urgently scale up mitigation ambition and implementation in this critical decade), 약칭: 감축 작업프로그램(Mitigation Work Programme)



해외 기후변화 동향

[참고] 감축 작업프로그램 운영 요소별 결정 사항

운영 요소	결정 사항
논의 범위	▲감축 관련 광범위한 주제별 분야, ▲IPCC 2006 국가 온실가스 산정 지침의 모든 부문을 포함, ▲IPCC 제6차 평가보고서의 제Ⅲ 실무작업반 보고서에 포함된 주제별 분야, ▲활성화 조건(enabling condition), ▲기술, ▲정의로운 전환, ▲범분야(cross-cutting) 이슈 등
운영 기간	COP27/CMA4 직후 개시하여 CMA8('26)까지 운영하되, CMA8에서 지속여부 결정 예정
운영 체계	기후변화협약의 부속기구 의장단이 개도국 및 선진국 각 1인으로 구성된 공동 의장을 임명(임기 2년)
논의체	▲매년 최소 2회의 전지구적 대화체(global dialogues) 개최, ▲매년 지역별 기후주간 등 기존 행사와 연계하여 추가적인 대화체 개최 가능, ▲재원·정의로운 전환 등을 논의할 수 있는 투자에 집중된(investment-focused) 행사 개최 예정
논의 주제 선정	①당사국, 옵저버 기구 및 기타 비당사국 이해관계자가 매년 2월 1일까지 대화체에서 논의할 주제에 대해 제안 → ②감축 작업프로그램 공동 의장이 제안된 주제를 기반으로 매년 3월 1일까지 그 해 대화체에서 논의할 주제를 결정 및 공지
의견 제출	당사국, 옵저버 기구 및 기타 비당사국 이해관계자에게 매년 대화체 주제와 관련된 기회·우수 사례·실행가능한 해결책·당면 과제·장애 요인 등에 관한 의견 제출 요청
논의 결과	매년 대화체에서 논의된 주요 결과에 대한 보고서 발간 예정

전지구적 적응목표 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 설립 합의

그 동안 적응 관련 논의를 주도해왔던 적응위원회(Adaptation Committee)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도국의 요청으로 전지구적 적응 목표 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 프레임워크의 성격과 목적, 세부 운영방식 등은 “글래스고-샤름엘셰이크 작업프로그램(GlaSS⁹⁾”을 통해 구체화하고, COP28('23.11, UAE)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기후재원 확대를 위한 논의 지속

개도국은 선진국이 장기재원 조성 목표인 연간 1천억 달러¹⁰⁾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였으며, 이에 선진국들은 2025년까지 1천억 달러 조성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를 점검하기 위해 1천억 달러 조성 경과보고서를 2년 주기('24, '26, '28)로 발간하기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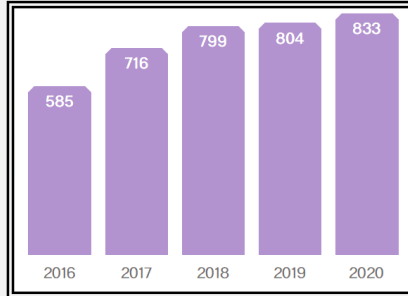
9) Glasgow-Sharm el-Sheikh work programme on the global goal on adaptation: 전지구적 적응 진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 지표 등을 개발하는 2개년('22~'23) 작업프로그램

10) 제16차 총회('10, 멕시코 칸쿤)에서 선진국이 약속한 2020년까지 연간 1천억 달러 조성 목표로, 제21차 총회('15, 프랑스 파리)에서 목표 시한을 2025년으로 연장



해외 기후변화 동향

[참고] 기후재원 제공·조성 현황(OECD 보고서¹¹⁾ 재구성



※ 단위: 억 USD, 양·다자 공적자금 및 민간 조성액 등 모두 합산

한편, 이 연간 1천억 달러를 최저선으로 하는 2025년 이후의 새로운 재원 조성목표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개시된 기술전문가 대화체¹²⁾를 통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파리협정의 첫 전지구적 이행점검을 위한 기술대화 실시

COP26에서 개시된 파리협정의 첫 번째 전지구적 이행점검(GST¹³⁾) 과정 중 두 번째 단계인 기술평가를 위한 '기술대화(Technical Dialogue)'가 진행되었다.

[참고] GST 단계별 절차 및 1차 GST 일정

GST 단계별 절차	(1단계)정보수집 및 준비	(2단계)기술평가	(3단계)결과물 검토
	GST에 활용할 투입자료 등 취합	기술대화를 통해 투입자료 검토 및 요약보고서 마련	고위급 행사 개최 및 주요 결과에 대한 결정문 도출
1차 GST 일정	'21.11~'23.6	'22.6~'23.6	'23.11

GST 3대 분야인 ①감축, ②적응, ③이행수단에 더해 이번 회기에는 ④시스템 전환까지 폭넓게 논의하였다. 특히 국가 간 협상이 진행된 다른 의제와는 달리, GST 기술대화는 각 국 대표뿐 아니라 기후변화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이 함께하는 포용적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논의 진행방식도 다채로웠다. 함께 둘러앉아 4대 주제에 대해 포괄적인 논의를 한 '원탁회의', 4대 주제에 대한 20개 세부 질문을 제시하고 질문별 테이블을 마련하여 참가자가 소규모로 모요 논의한 후 다음 테이블로 순회하는 방식인 '월드 카페', 특정 주제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한 '특정 주제에 집중한 의견교환(focused exchange)'이 진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GST 주제와 관련된 영상 등이 상영된 '창의적 공간(creative space)'과 주요 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등을 전시한 포스터 세션도 부대행사로 함께 진행되었다.

11) OECD, *Aggregate Trends of Climate Finance Provided and Mobilised by Developed Countries in 2013-2020*(22.9), Figure.1 재구성

12) COP26에서 '22~'24년 간 매년 4회의 기술전문가 대화체 및 1회의 고위급 대화체를 통해 새로운 재원목표를 논의하기로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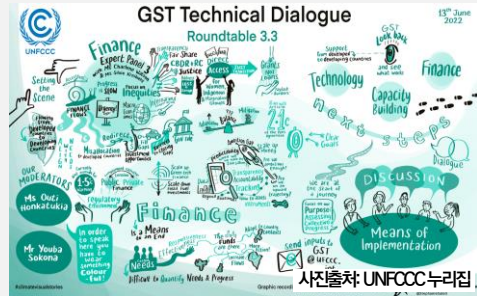
13) Global Stocktake: 파리협정 제14조에 규정된 점검 체계로, 협정 장기목표 이행 및 달성여부를 전지구적 차원에서 5년에 한 번씩 점검. 1차 GST는 '21.11~'23.11, 2년 간 진행되며, COP28/CMA5('23.11, UAE)에서 종료 예정



해외 기후변화 동향



[월드 카페에 모인 참가자들]



[기술대화 내용을 요약한 일러스트]

국제탄소시장 이행을 위한 파리협정 제6조 추가 지침 개발

COP26에서 6년 간의 협상 끝에 채택한 협정 제6조 기본 지침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지침 개발 작업이 진행되었다. 당초 이번 회기에 채택하기로 한 세부 사항 중 제6조 업무 순서상 가장 시급한 추가 지침을 우선적으로 채택하고, 시간 관계상 논의 못한 주제 등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다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하였다.

[참고] 파리협정 제6조 3대 하부 조항별 추가 지침 채택 현황

조항 구분	추가 지침 주요 내용
제6.2조 협력적 접근법	(1) 감축실적 추적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방향 (2) 제6조 기술전문가검토에 대한 지침 (3) 제6조 기술전문가검토 보고서 양식 (4) 제6조 기술전문가검토에 참여하는 전문가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 (5) 초기 보고서의 양식 (6) 정례 보고서의 양식 (7) 합의된 전자적 양식 초안
제6.4조 메커니즘	(1)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전환 절차 (2) '21년 이전에 발급된 CDM 감축실적(pre-2021 CER)의 사용 절차 (3) 제6.4조 사업 유치국에 의한 보고 (4) 제6.4조 메커니즘 등록부 개발 방향 (5) 제6.4조 메커니즘에서 발생한 수익금 분배 방안 (6) 전지구적 전반적 감축 달성 방안
제6.8조 비시장 접근법	(1) 비시장 접근법 작업프로그램 운영 일정 (2) 비시장 접근법 웹 플랫폼 개발 방향



해외 기후변화 동향

(제6.2조) 국가간 다양한 협력사업을 허용한 제6.2조 관련, 사전 정보 성격인 ‘초기 보고서(initial report)’의 양식과 참여 국가가 제출한 보고서를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제6조 기술전문가검토’ 세부 절차·결과보고서 양식·검토 전문가 훈련 프로그램 등에 관한 추가 지침을 마련하였다. 또한 감축실적 거래 수량에 대한 연간 정보 보고표인 ‘합의된 전자적 양식’의 초안과 2년 마다 제출해야하는 제6조 관련 종합보고서인 ‘정례 보고서’의 양식도 개발했다.

[참고] 제6.2조 초기 보고서 목차 및 보고대상 정보

참여 당사국 정보	개별 협력적 접근법 정보
<p>I. 참여 요건 충족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정 당사국, NDC 제출 및 유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제6.2조 활용이 자국 NDC 및 LEDS에 기여 여부 등 <p>II. NDC에 대한 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치, 목표 및 기준연도, 이행기간, 포함 부문 및 온실가스, ITMO 활용의향 등 <p>III. ITMO 산정단위(metrics), 상응조정 방법, NDC 정량화 방법</p>	<p>IV. 개별 협력적 접근법에 관한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당사국에 의한 허가 사본 - 협력적 접근법에 대한 설명(description) - 협력적 접근법의 기간(duration) - 기간 동안의 연간 예상 감축량 - 참여 당사국 - 참여 기구(참여 당사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구) - 협력적 접근법의 환경건전성 입증 여부 - 협력적 접근법에 대한 추가 정보

(제6.4조) COP26에서 합의한 교토의정서 하 감축 메커니즘인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및 감축실적(CER)의 제1차 NDC에 사용 절차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사업 전환 신청서 양식 등은 이번에 논의하지 못하고, 제6.4조 메커니즘 감독기구(Supervisory Body, SB)에서 2023년 6월까지 마련하여 공지하기로 하였다.

CDM 사업을 제6.4조 사업으로 전환하는 절차

[전환 절차]

- ① CDM 사업 유치국의 승인을 받은 사업 참여자 또는 기구가 사무국 및 제6.4조 및 CDM 사업 유치국 국가승인기구에 전환 신청서 제출('23.12.31까지)
- ② 제6.4조 국가승인기구가 전환을 승인한 경우, 승인 내용을 제6.4조 SB에 제출('25.12.31限)
- ③ 전환 사업은 제6.4조 지침에 따른 사업 주기 등 제반 조항 준수
- ④ 제6.4조 사업으로 전환 확정 일자에 CDM 사업이 등록 자동 취소(deregister)

[사업 기간]

CDM 사업 등록시 선택한 고정 또는 갱신형 사업기간은 제6.4조 사업으로 전환할 때 변경하지 못하며, 다음 중 이른 시점까지 사업기간 인정

- ① 현재의 CDM 사업기간 종료 시점
- ② 갱신형 사업의 경우 2025.12.31
- ③ CDM 사업 유치국이 별도로 정한 사업 기간



해외 기후변화 동향

또한 제6.4조 사업 유치국이 보고해야할 정보 및 제출처를 명확히 하고, 사업등록수수료 요율 등 제6.4조 메커니즘 운영을 위한 행정경비 명목의 수익금 분배 방안도 마련하였다.

제6.4조 운영을 위한 행정경비 목적의 수익금 분배 이행 절차

[구성]

①사업 등록비(registration fee), ②CPA 추가비(inclusion fee), ③A6.4ER 발급비(issuance fee), ④사업기간 갱신비(renewal fee), ⑤등록 후 변경 요청비(post-registration change fee)로 구성

[부과 요율]

구분	부과 기준(연간 예상감축량)	요율	
①사업 등록비	(1차) 사업기간 중 연간 예상 감축량	15,000tCO ₂ eq이하	최대 2,000USD
		15,001~50,000tCO ₂ eq	최대 6,000USD
		50,000tCO ₂ eq 초과시	최대 12,000USD
②CPA 추가비	건당	최대 1,000USD	
③A6.4ER 발급비	A6.4ER당	최대 0.20USD	
④사업기간 갱신비	①사업 등록비 및 ②CPA 추가비요율 동일하게 적용		
⑤등록 후 변경 요청비	건당	최대 2,000USD	

(제6.8조) 비시장 접근법은 국가 간 협력은 하되, 감축실적과 같은 대가를 주고 받지 않는 협력방식을 의미한다. 비시장 접근법에 관한 작업프로그램은 2년 단위의 2단계('23~'24, '25~'26)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지원사업 정보 제공과 함께 공여자나 수혜자가 자체적으로 매칭하는 기능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COP27 계기, 신규 이니셔티브 출범

의장국 이집트는 1주차 '샤름엘셰이크 기후이행 정상회의¹⁴⁾' 계기 정상급을 대상으로 6대 주제에 대한 원탁회의와 더불어 회의 기간 중 주제별 행사(thematic days)를 진행하였다.

[참고] COP27 의장단 주관 정상급 원탁회의 및 주제별 행사 일정

정상급 원탁회의		11.9(수)	11.10(목)	11.11(금)
11.7(월)	11.8(화)	재원	과학	청년층과 미래 세대
①정의로운 전환, ②식량 안보, ③기후 및 개발을 위한 혁신적 재원	④에너지의 미래에 대한 투자, ⑤물 안보, ⑥기후변화와 취약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11.12(토)	11.14(월)	11.15(화)	11.16(수)	11.17(목)
적응 및 농업	양성 평등, 물	대중참여 및 시민사회, 에너지	생물다양성	해결책

14) ETS Insight 제53호('22.11월) 참조



해외 기후변화 동향

또한 14개의 새로운 이니셔티브들을 출범시키고 각 국의 참여 및 협력을 요청하였다. 특히 아프리카 대륙을 대상으로한 이니셔티브가 다수인 점이 눈에 띈다.

주요 이니셔티브

•지속가능전환을 위한 식량과 농업 이니셔티브

(FAST: Food and Agriculture for Sustainable Transformation Initiative)

- 2030년까지 농업 및 식량시스템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기후재원의 규모 및 품질 제고

•글로벌 폐기물 이니셔티브

(Global Waste Initiative 50 by 2050 For Africa towards a global impact)

- 2050년까지 아프리카지역에서 발생하는 고형폐기물의 최소 50%를 처리 및 재활용

•아프리카의 정의롭고 부담가능한 에너지 전환

(Africa Just & Affordable Energy Transition)

- 2027년까지 최소 3억 아프리카 주민들에게 재정적으로 가능하고 부담가능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적·정책적 지원 제공

•국가투자계획 녹색화를 위한 연합

(Friends of Greening National Investment Plans)

- 2030년까지 회원국 국가투자계획의 최소 30%를 녹색 프로젝트에 배분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 활동

이번 총회에 우리나라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¹⁵⁾ 공무원 및 자문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100여 명의 정부대표단을 파견하였다.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우리 대표단은 이번 총회 개최 이전부터 주요 의제인 감축 작업프로그램, 파리협정 제6조 등에 대해 국가제안서를 제출하여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했고, 이 내용 중 일부가 이번 총회 결정문에 일부 반영되었다. 아울러 신기술을 활용한 원자력, 그린 수소 등 새로운 청정에너지의 국제적 확대를 위해 에너지 믹스에서 청정에너지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안을 대표 결정문에 반영하는 등 협상 진전에 기여했다.



[고위급세션에서 발언 중인 한화진 환경부 장관]



[대한민국 정부대표단]

15) 환경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림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등



해외 기후변화 동향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 실시된 UNFCCC 사무국 및 관련 기구 직위 132석에 대한 선거에서 우리나라는 △적응기금 이사회 이사, △재정상설위원회 위원에 진출하여 국제사회의 기후재원 논의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대한민국 국가홍보관 운영 결과

우리 정부는 이번 총회 기간 중 국가홍보관을 운영, 우리나라의 기후정책을 홍보함과 동시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기후변화 관련 주제에 대해 논의의 장 제공 등의 역할을 하였다. 총 35건의 부대행사가 개최되었고, 5천 2백 명 이상의 방문객이 한국홍보관을 찾았다.



[환경부 주관 NDC 상황을 위한 부대행사]



[한국홍보관을 가득 메운 방문객들]

지불 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미래 세대의 절규

손실과 피해 기금 설립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폐막 총회가 지연되던 중, 가나 대표단을 대표하여 10세 소녀 나키얏 드라마니 샘(Nakeeyat Dramani Sam)이 발언을 요청하였다. 드라마니 샘은 본인이 다른 대표단들의 나이였다면 지구온난화를 끝내기 위해 훨씬 빨리 행동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조속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다음 총회에는 청년 대표단만 파견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사진출처: UN 누리집

[10세 가나 소녀의 외침]

이어 일부 국가에 의한 지구온난화로 모든 지구 시민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미 이 빚에 대한 지불기한은 지났으니 가나와 같이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기금을 즉각 제공할 것을 촉구하였다. 기후위기는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으나,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미래 세대에 어떤 지구를 남겨줄 것인지 각 국 정부는 조속한 기후행동으로 답을 해야 할 것이다.



해외 기후변화 동향

한편, 다음 총회 COP28은 2023.11.30.(목)~12.12.(화), 2주 간 아랍에미리트공화국(UAE) 두바이에서 개최된다. COP28에서는 파리협정의 첫 번째 GST가 마무리될 예정이며, 성공적인 GST 결과물 도출을 위해 '기후 의욕 정상회의(Climite Ambition Summit)'가 COP28에 앞서 개최될 예정이다.

COP27 계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한 국가는?

COP26('21.11, 영국 글래스고)에서 각 국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NDC를 올해 말까지 상향 제출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이번 COP27을 전후하여 NDC와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제출한 국가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¹⁶⁾.

NDC

멕시코, 안도라, 동티모르, 베트남, 바하마, 싱가포르, 노르웨이, 태국, 적도 기니, 마이크로네시아 10개국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인도, 짐바브웨, 태국, 아르헨티나, 싱가포르, 독일, 튀니지, 캐나다 8개국

[COP27 계기 NDC를 상향 제출한 주요 국가 현황]

국가명	제출일자	기존 NDC	갱신 NDC
멕시코	'22.11.17.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22(36)% 감축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5(40)% 감축
안도라	'22.11.08.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55% 감축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
베트남	'22.11.08.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9(27)% 감축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15.8(43.5)% 감축
태국	'22.11.02.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20(25)% 감축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0(40)% 감축
마이크로 네시아	'22.10.17.	•2030년 에너지, 식량, 수자원 안보 등 부문별 정책 목표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28(35)% 감축

16) UNFCCC 누리집 내 NDC 등록부 및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웹페이지 검색. 대상기간: 2022.10.1.~11.20.



해외 기후변화 동향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기업에 대한 횡재세 부과 계획

[CNN >](#)[Reuters >](#)[Bloomberg >](#)[Euractiv >](#)[Bloomberg >](#)[BalkanGreenEnergyNews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올해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한 석유 및 가스 회사의 이익에 대한 세금(일명 '횡재세')을 징수해야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최근에 발표된 주요국의 횡재세 부과 및 인상 계획을 살펴보았다.



영국

- 11월 17일, 정부 중기 예산 발표 시 석유 및 가스 기업에 대한 횡재세 인상안 발표
- '23년부터 에너지 이익 분담금을 25%에서 35%로 인상, '28년 3월 말까지 유지 예정
- 이를 통해 '23년 140억 파운드(약 22조원), '22년~'28년 550억 파운드(약 87조원) 이상 징수 예상



이탈리아

- 11월 22일, 에너지 기업에 대한 횡재세 인상 계획이 담긴 350억 유로(약 48조원)의 '23년 예산안에 서명
- '23년 7월까지 에너지 기업의 추가 이익에 대한 세율을 현행 25%에서 35%로 인상 예정



독일

- 11월 25일, 990억 유로(약 136조 원) 규모의 '에너지 공급 제도(energy supply scheme)' 발표
- 지역 난방비 등의 프로그램에 지급될 예정이며, 에너지 기업 횡재 수입의 90%에 해당하는 횡재세를 부과하여 자원 조달 예정
- 횡재세는 사용 연료를 기준으로 적용되어, 갈탄 생산자는 시간당 82유로(약 11만원) 이상의 수익에, 석유 생산자는 280유로(약 39만원) 이상의 수익에 세금 부과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도 재생에너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에너지 및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횡재세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해외 기후변화 동향

수소, 2050년에는 가장 많은 발전을 담당하는 에너지원이 될 것...

BNEF >**보고서 바로가기**

블룸버그 NEF(BNEF)는 전기·산업·건물·수송 부문 등 세계 에너지 장기 시나리오 분석 결과가 포함된 '신규 에너지 전망 보고서 2022(NEO 2022¹⁷⁾)'를 발간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 2°C 상승 억제를 위해서는 각 국 정부와 기업들이 저탄소 기술로의 전환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고, 2050년에는 수소가 최대 발전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참고: NEO2022 2대 시나리오]

① 넷제로 시나리오(Net Zero Scenario, NZS)

- 2050년까지 청정 전력 발전·전기화·탄소포집 및 저장(CCS)·수소 등이 신속하게 배치되는 것을 가정한 시나리오

② 경제적 전환 시나리오(Economic Transition Scenario, ETS)

-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신규 정책조치가 부재하다고 가정한 시나리오

배출량 전망

넷제로 시나리오(NZS)에서 수송 부문 배출량은 2024년에 정점을 찍고, 특히 도로 수송의 전기화를 통해 빠르게 감축시켜야 함을 제안했다. 산업 부문 배출량은 2030년에 급격한 감소가 시작된다. 건물 부문 배출량은 산업 및 수송 부문 배출량보다 훨씬 낮은 상황으로, 올해를 정점으로 천천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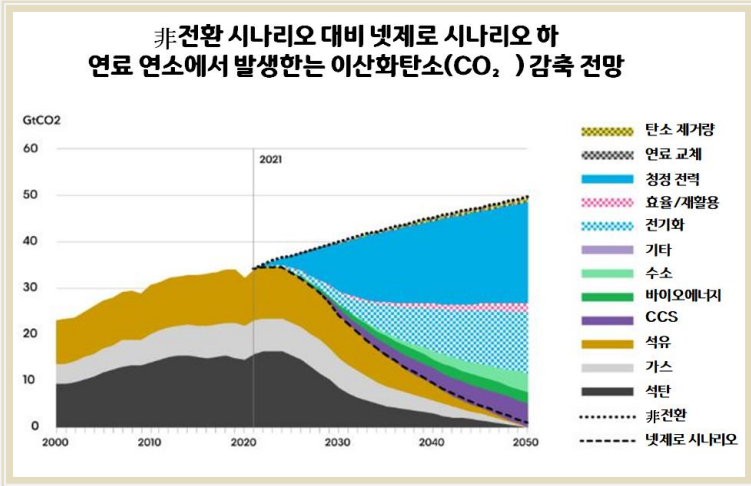
탄소예산

넷제로 시나리오 달성시 2050년까지 지구온도상승을 1.77°C로 제한할 수 있는 반면 추가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제적 전환 시나리오에서는 배출량이 매년 평균 0.9% 감소하여 2050년까지 2.6°C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17) New Energy Outlook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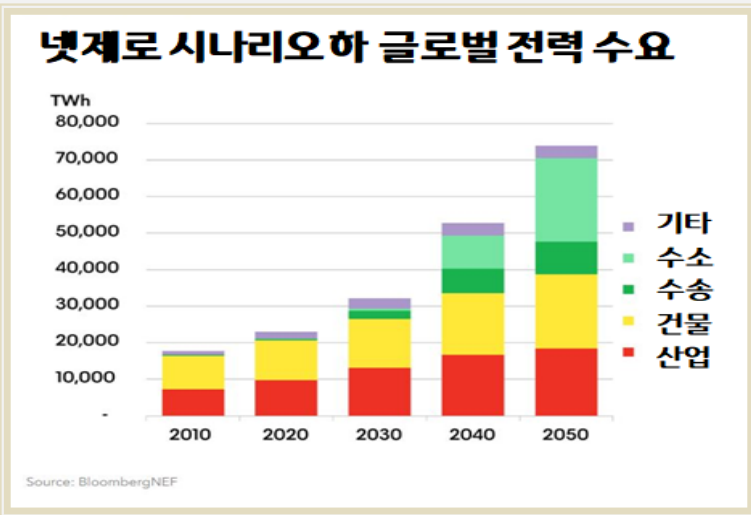


해외 기후변화 동향



감축 전망

넷제로 시나리오에서 2022~2050년 동안 화석연료에서 청정 전력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배출량 감소는 총 감소량의 절반을 차지한다. 수송·산업공정·건물·난방의 전기화를 통한 저탄소 전기의 사용은 총 배출량의 약 25%를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수소는 약 6%, 탄소포집 및 저장은 11%를 감축시킬 수 있다.



전기화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발전량이 상당 수준 증가되어야 한다. 경제적 전환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에 현재의 두 배에 가까운 46,000TWh, 넷제로 시나리오에서는 현재의 3배 이상인 80,000TWh이상의 전력이 필요하다. 수소가 이러한 전력 수요 충당을 위해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전력원이 될 것이며, 2050년 수소 발전량은 2020년의 전 세계 총 전력수요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기후변화 동향

재생에너지, 향후 5년 내 발전 용량 2배 증가 전망

IEA >



보고서 바로가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계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이 지구온난화를 1.5°C로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재생에너지 2022(Renewables 2022)' 보고서를 발표했다. IEA는 향후 5년 안에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총 용량이 약 두 배 증가할 것이며, 이러한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 가속화 추세에 힘입어 석탄을 넘어서 최대 발전원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전망치 사상 최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생한 전 세계적 에너지 위기는 전례 없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가속화를 촉발했다. 화석연료 비용이 상승하면서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되었고, 화석연료의 공급 차질은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향후 5년(2022~2027년) 간 재생에너지 용량은 중국의 전체 발전 용량에 맞먹는 약 2,400GW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이는 이전 5년 대비 85% 가속화되는 것으로, 전년 전망치 대비 약 30% 증가하여 역대 최대로 상향된 것이다. 이는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¹⁸⁾과 시장 개혁, △유럽의 REPowerEU 계획,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¹⁹⁾에 기인한다.

재생에너지 추가 설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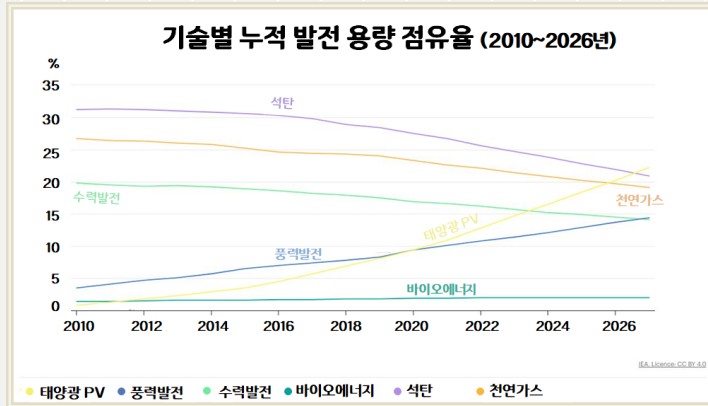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설치 확대에 힘입어 2027년까지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 용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석 대상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의 전력믹스(power mix) 점유율은 10% 증가하여 2027년에 38%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풍력 및 태양광 발전으로부터 생산된 전기는 향후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하여 2027년에는 전 세계 총 발전량의 약 20%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7년까지 신규 육상풍력 570GW이상이 가동될 것으로 전망되며, 태양광 발전 용량은 석탄을 넘어서 세계 최대 발전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18) ETS Insight 제47호('22.5월) 참조

19) ETS Insight 제51호('22.9월) 참조



해외 기후변화 동향



2050년 넷제로 격차

국가별 정책, 규제, 자금조달 등이 해결될 경우,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이 약 3,000GW까지 확대될 수 있고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한 경로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발전필요량 격차를 상당 수준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 생산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에서 수소 생산을 신규 성장 분야로 전환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수소 생산을 위한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은 향후 5년 안에 100배 증가하여 산업부문과 수송 부문을 탈탄소화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5년 동안 수소 생산을 위해 최소 50G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중-일, 탄소가격제 및 탄소시장 협력 강화를 위해 모여...



제7차 한·중·일 탄소가격 메커니즘 포럼이 12월 8일,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중국 칭화대학교, 일본 지구환경전략연구소(IGES)가 함께 주최하는 동 포럼을 통해 3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탄소가격제 운영 현황, 향후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해 오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 우리 측은 △배출권거래제(K-ETS) 운영 현황과 성과, △국제감축사업 추진 전략 등 파리협정 제6조 활용 계획, △민간의 자발적 탄소시장 개발 현황 등을 공유하였다. 중국 측은 △발전 부문 배출권거래제 운영 현황, △중국 외부감축사업실적(CCER) 개선 계획, △탄소시장 참여기업의 대응 현황 등을 소개했다. 일본 측은 △녹색전환(GX: Green Transformation) 메커니즘 운영계획, △공동크레디팅메커니즘(JCM) 확대 운영 현황, △민간의 감축사업 개발 사례 등을 공유했다. 3국은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탄소시장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구독자 QUIZ!

| 지난 호 정답 | 지속가능항공연료(SAF)
| 지난 호 퀴즈 정답자 선물 발송 | 2022.12.19
| 이번 호 이벤트 마감 | 2022.1.12

기업 등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자발적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정답 찾으러가기 >

정보지 활용조사

정보지 공유, 인용사례 등 활용실적을
보내주시면 "커피&디저트 기프티콘" 증정!

<예시> 기관 공유 사례 증빙 캡처

자료명	번호	제목	공표일	유형
기후변화	제 27호	ETS INSIGHT의 배출권거래제&탄소시장 정보지 2022.12호 판	2022.11.23	기후변화
주요취재	제 27호	ETS INSIGHT의 배출권거래제&탄소시장 정보지 2022.12호 판	2022.11.23	주요취재

이메일

etsinsight@keco.or.kr
(기프티콘 받으실 휴대폰 번호 기재 후 송부)

※ 정보지 만족도조사, 정보지 활용도 조사는 구독자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하여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며, 작성하신개인정보는 구독신청이나, 상품제공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정보지 설문조사

새로워진 정보지 설문조사 참여하고
정보지 월간 퀴즈 응모 시
정답자 중 30분께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 증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탄소시장 정보지

ETS INSIGHT 는

보다 실속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구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정보지 설문조사 바로가기

※ 만족도 조사 결과는 본 조사 목적 외 다른 목적 및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정보지 모바일 채널

Ch

배출권거래제 & 탄소시장 정보지 +

'배출권거래제 & 탄소시장 정보지'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고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정보지 안내사항

본 정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 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저작권이 있으며,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자께서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공공저작물 내용상의 변경 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본 정보지의 상업적 이용 혹은 저작물 변경, 2차 저작물을 작성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소유하지 않은 저작물 (전문가 기고, 인터뷰 등)의 무단 사용으로 인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2022년도 배출권(KAU22) 이월차입 및 제출 안내

배출권의 이월과 차입

- ▶ **이월 · 차입 신청기간** 배출권 인증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23년 6월 초)
- ▶ **이월한도** '22년도 배출권(KAU22)과 상쇄배출권(KCU22) 순매도량(매도량-매수량)의 2배
※ 이월신청일 전날까지의 거래량으로 순매도량 산정

(예시) 6월6일까지의 순매도량이 100톤인 업체가 6월7일에 500톤을 매도한 후, 오후에 이월 신청을 한 경우

※ 6월6일까지 순매도량 100톤의 2배인 **200톤까지만 이월 가능**

- ▶ **차입한도** 해당 업체가 배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에 {① 직전 이행연도의 배출권 차입 한도 - (② 직전 이행연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중 차입한 배출권 수량의 비율 × 0.5)}를 곱한 값 이내

(예시) A업체가 '21년도에 제출하여야 하는 배출권(인증량)의 8%를 차입한 경우

- ① 직전 이행연도의 배출권 차입 한도 → '21년도 차입 한도인 **15%**
- ② 직전 이행연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중 차입한 배출권 수량의 비율
→ 업체가 전년도에 차입한 비율인 **8%**

$$\text{'22년도 배출권 차입 가능수량} = \text{'22년도 배출권 제출수량(인증량)} \times \text{'21년도 차입한도 15\%} - \text{'21년도 실제 차입량 비율 8\%} \times 0.5$$

※ A업체는 '22년도 배출권 제출수량(인증량)의 **11%**{0.15-(0.08×0.5)}까지 차입가능

배출권의 제출

- ▶ **제출신고 기한** '23년 6월 30일까지(이의신청 업체는 이의신청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 ▶ **제출 가능한 배출권** KAU22, KCU22, i-KCU22
- ▶ **상쇄배출권(KCU) 제출한도** '22년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인증량)의 5%까지
- ▶ **배출권 소멸** 제출기한까지 처리(제출, 매도 등)하지 않은 배출권은 소멸

배출권의 거래

현재 모든 배출권 종목(KAU22~KAU25, KCU22, i-KCU22 등)의 거래가 가능하며, KAU22는 배출권 제출기한인 '23년 6월 30일까지 거래가 가능함. 다만, 이의신청을 한 업체는 이의신청 업체의 제출기한(이의신청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까지 KAU22의 거래가 가능함

※ KAU21은 거래 종료

배출권의 이월 · 차입 및 제출신고 방법

배출권등록부시스템(ETRS)으로 배출권 제출신고 및 이월 · 차입 신청서 제출

자세히 알아보기

2022년도 배출권거래제 길라잡이 바로가기



ETS INSIGHT

Emissions Trading Scheme &
Carbon Market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탄소시장 정보지



본 정보지 관련 건의사항 및 의견 또는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시장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해당 이메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 배출권정책지원부 etsinsight@keco.or.kr
한국환경공단 기후정책지원부 climate4all@keco.or.kr(해외 기후변화 동향)